

## Contents

권두언	1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3
2020 총회 소식	5
학회지 발간	5
회원동정	5
신간 소개	6
공지사항	9
회비납부	9

발행일 2021. 12. 31.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변현태

## 권두언

안녕하십니까! 이 무심하고 사소한 인사의 의미가 지닌 가치가 더욱 소중한 요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한 만 2년의 시간,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함께 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깨를 토닥이며 미리 ‘수고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방학 때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받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파샤(제 러시아 이름입니다.), 애들이랑 물놀이 가고 싶은데, 눈썰매장 가고 싶은데 가까운 데 갈만한 곳 없을까?’ 한글 메시지가 아닌 러시아어로 받는 문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파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과제를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야? 우리 아이 곧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어느 학교로 보내야 해?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라는 내용의 문자들을 보다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직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관련 내용들에 대한 문의도 자주 받습니다.). 몇 년 전에 받았던 문자들은 제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받았던 질문들의 경우는 청주 토박이가 아니고, 그리고 대학입시, 더군다나 중고등학교와는 거리가 먼 저였기에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하고 여기저기 문의를 한 후에야 비로소 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쁠 때는 러시아어 상담이 가능한 충북국제교육원 다국어 콜센터 연락처를 넘겨주기도 합니다. 저 또한 나름 준비한 답을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 발등의 불을 끄는 것 같은 단타적인 그러한 응대보다도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다양한 교육방식,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블랜디드 러닝, 고교학점제 등과 같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중장기적인 우리의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체계적인 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1.03) 청주시에는 고려인을 포함하여 러시아어권에서 온 외국인 총 4,69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수가 위와 같으며 등록되지 않은 이주민의 수까지 포함하면 청주에는 많게는 7천여 명, 주변 오창, 증평, 진천을 포함한 충북지역 전체에는 약 1만 명 가량의 러시아어권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 러시아어권 이민자 중 상당수가 고려인입니다. 직장을 얻기가 다소 용이한 중소기업과 자녀를 위한 교육 시설, 러시아 언어권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들이 청주와 청주 인근의 농어촌 도시를 찾는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청주시에는 흑빵과 레표시카를 직접 만들어 파는 빵집, 보드카와 맥주를 비롯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 식당, 노래방, 비자 학원, 물류 센터 등을 비롯하여 20여개가 넘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관련 자영업 시설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학교(Русский дом)에서는 러시아 정규 시콜라 교과과정을 가르치면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월, 청주에서 멀지 않은 진천에서도 러시아 학교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작가이자 화가인 고려인 5세 미하일 박은 청주에 거주하며 지난 5월 자신의 작품 전시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市)보건소, 다문화지원정학교, 앞서 말한 국제교육원 등지에도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고려인을 포함한 러시아, 중앙아시아권 출신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주에는 소위 이들이 말하는 ‘러시아 거리’라는 곳도 존재합니다.



청주시와 관련된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의 페이스북 계정만도 20여개가 넘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Наши в Чхонджу, Cheongju (청주시)’라는 페이스북 사이트에는 1만 7천여 명, 동명의 다른 그룹에는 6,400여명, ‘Наши в Чхонджу’ 그룹에는 6,6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에서는 상점에 막 들어온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물품, 새로 선보이는 자국 음식과 메뉴, 주거 정보, 아르바이트와 직장 정보, 공항 운행 택시 정보, 한국어 교육 정보, 코로나 관련 소식 등 다양한 정보들이 활발히 교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과 광주광역시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들이 천안과 아산, 경주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 청주시에는 다문화 정책학교로 지정된 32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는 재학생의 30% 이상이 러시아어권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느 학급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50%의 러시아어권 학생들과 50%의 선주민 한국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를 가르쳐야 하는 현장 선생님들의 상황이 상상이 가시는지요?

고려인이 상당수인 청주와 충북지역 러시아어권 이민자들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들이 단순 노동이 아닌 정착의 목적을 위해 이주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증가하면서 선주민들과의 갈등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 지침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어,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들이 한국인이지만 외국인, 외래인으로 분리,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들은 자꾸 움츠리고 음지 아래 숨으려 드는 속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잘 구축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로 선주민인 한국인들과의 교류도 필요치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증가추세에 있는 이들 외국인거주자들을 위해 올해 자치행정과에 외국인사회통합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상대해야 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고려인을 포함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의 이주민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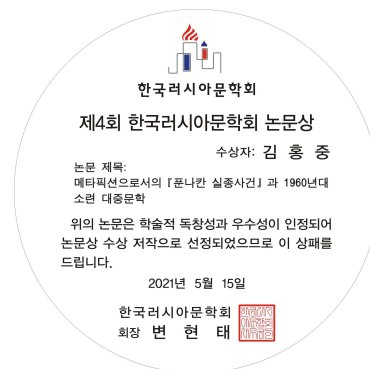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 고려인 이주민들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서입니다. 과거의 많은 정책이 이들에 대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각종 처우 개선과 관련된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이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 시급히 도래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살아가게 될 국내 체류 고려인의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는 문제는 머지않아 사회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의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시키는 작업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한러관계, 그리고 남북러관계에 있어서도 강

력한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대하자는 것이냐!’라기 보다는 상생과 조화의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그들의 역사를 교육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는 국내 체류 고려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 전공자들의 또 다른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 하나는 ‘장군의 귀환’이었습니다. 84년 전 이맘때 낯선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에 버려진 한인들은 다가올 한 치 앞의 운명도 가늠하지 못한 채 추위와 굶주림 앞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맡겨야 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의 귀환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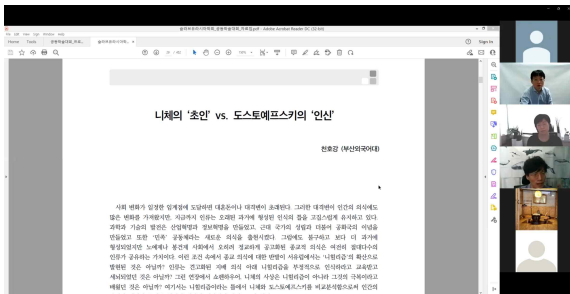
▶5월 15일 제88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학분과에서는 정격택 회원(경상대)의 「캅카스 아드그민족과 아드그어의 상황 연구」, 문학에서는 정지윤 회원(경북대)의 「푸슈킨의 피에로, 삼손 브이린」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문화분과에서는 김주연 회원(고려대/연극평론가)의 「페테르부르크, 막이 오른다」의 저서 후기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러시아 문학회 2020년도 논문상> 이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김홍중 회원이 「메타픽션으로서의 <폰나칸 실종사건>과 1960년대 소련 대중문학」으로 학술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4회 한국러시아문학회 논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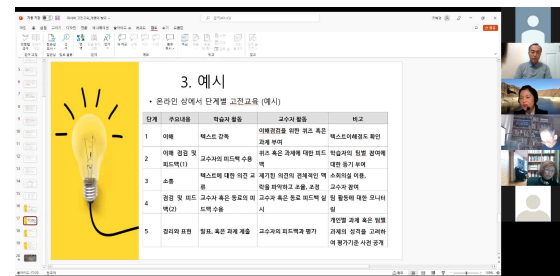


▶10월 16일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주관으로 2021년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개막, 소련 해체 이후 30년을 돌아보다”를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통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과학, 문학, 어학·통번역, 역사학·문화학 분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1편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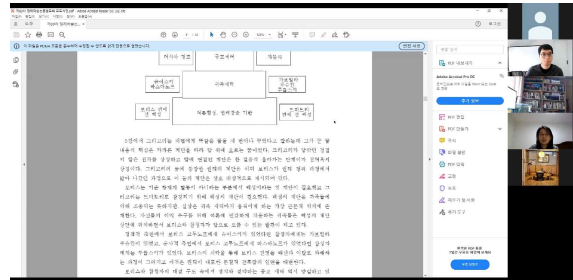


<2021년 4개학회공동학술대회 문학 분과 발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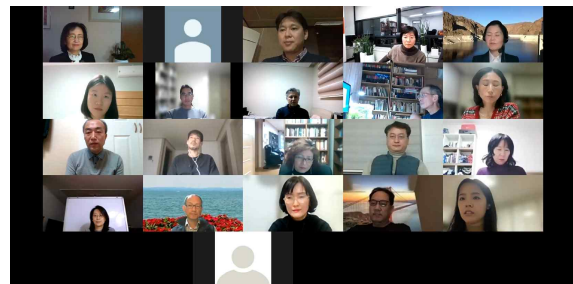
▶12월 18일 제89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89차 정례학술대회에서는 류순옥 회원(고려대)의 「<보리스 고두노프> 연구: 권력의 문제와 극의 구조」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특별 세션으로 석영중 회원(고려대)의 <도스토예프스키 깊이 읽기>, <도스토예프스키 명장면 200> 북 콘서트와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제89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라운드테이블 발표 장면>



<2021년 제89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발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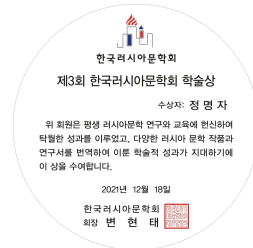


<2021년 제89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총회 장면>

## 2021 총회 소식

▶ 12월 18일 러시아문학회 회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정명자 회원이 제3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상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회칙에 따라 한국러시아문학회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심성보 회원이 1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3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학술상 상패>

## 학회지 발간

▶ 8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4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어학 및 문화 분야의 논문 8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이주홍(성균관대), 홍택규(한림대) 회원의 [러시아어 동사 상적 삼중쌍 논의에 부쳐], 강수경 회원(경북대)의 [러시아 카바레와 미니어처 극장의 기원과 탄생]을 포함한 논문 4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11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5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어학 및 지역학 분야의 논문 10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이선영 회원(고려대)의 [도스토옙스키의 『운

순한 여자』와 자살의 문제], 조규연 회원(중앙대)의 [러시아 의고주의와 레미조프의 신화시학], 길윤미 회원(경북대)의 [러시아어에서의 부정의 영향권 연구:부정어의 위치와 부정 영향권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전미라 회원(한국외대)의 [미하일 바흐친과 웨인 부스 : ‘일차적 작가’와 ‘내포 작가’ 개념 비교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8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2022년 2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6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 회원동정

▶ 석영중 회원이 지난 임기에 이어 2023년까지 고려대학교 도서관장직을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석영중 회원은 지난 2019년부터 고려대학교 도서관장을 역임하며

비대면 서비스 구축과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신간 소개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 1.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на перекрестках истории』 (도스토옙스키 지음, 홍대화 옮김, 창비, 2021년 6월 1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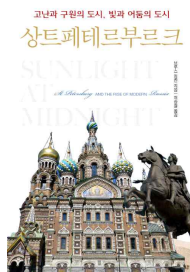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과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2019-2021년)을 받은 한일협력연구사업(한국측 참여자: 남혜현, 김수환, 윤영순, 정보라, 정영주, 일본측 참여자: 노나카 수수무, 발레리 그레취코, 코미야 미치코, 카야무라 아야, 코노 와카나)의 연구성과를 모은 단행본이자,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близкая Россия 4번째 시리즈이다. 한국과 일본 외에도 러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헝가리, 스위스의 연구자 29명이 모여 19-21세기 격변기 러시아의 문화, 문학, 사회, 언어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연구 프로젝트의 주축이 되는 동아시아 3개국의 연구자들이 가까우면서도 먼 러시아를 타자의 시선으로 보고, 유럽 주변국과 당사자인 러시아 연구자들이 단행본 제작에 참여하여 균형추를 더했다. 국내의 러시아 연구자들이 주도하여 문화동역학적 관점에서 러시아 역사의 결정적 전환국면에 사회적 변형의 상징적 구조를 떠받치는 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 2. 『상트페테르부르크-고난과 구원의 도시, 빛과 어둠의 도시』 (W.브루스 링컨 지음, 허승철 옮김, 삼인, 2021년 10월 25일 출간)

미국에서 손꼽히는 러시아 역사 전문가인 윌리엄 브루스 링컨의 유작이자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저작으로, 얼마 전 정도 3백 주년을 맞은 이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다루었다. 표트르 2세가 잠시 모스크바로 천도한 몇 년을 제외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20세기 초 볼셰비키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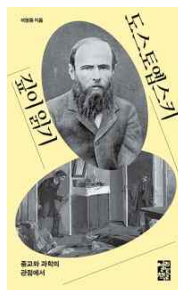


해 다시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겨 갈 때까지 줄곧 수도로서, 유럽으로 난창의 역할을 해오며 러시아의 고난과 구원, 빛과 어둠의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에르미타주에 놀라운 보물을 보기 위

해, 세상을 뒤흔들었던 혁명의 과거를 접하기 위해,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이 도시를 찾는다. 마찬가지로, 3백여 년 전 서방으로 낸 창이 된 이래 이 도시는, 열다섯 개 시간대에 걸쳐 있으면서 지구 표면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강력한 근대 제국의 신경중추로서,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던 수많은 이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었다.

### 3. 『도스토옙스키 깊이 읽기』(석영중 지음, 열린책들, 2021년 10월 30일 출간)



종교와 과학의 코드로 읽는 대문호의 문학 세계

현대 과학이 제기할 문제들을 도스토옙스키는 한 세기 앞서 어떻게 예언했을까? 오늘날의 신경 과학자들과 도스토옙스키가 논쟁을 한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을 통해 어떻게 신의 형상을

그리고자 했을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도스토옙스키로부터 무엇을 배운 걸까?

노문학자 석영중 교수의 저서 『도스토옙스키 깊이 읽기: 종교와 과학의 관점에서』가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서 오랜 세월 도스토옙스키 강의를 해오며 여러 권의 도스토옙스키 관련서를 펴낸 석영중 교수가 지난 20여 년간 발표해 온 연구 성과들을 추려서 묶은 책이다. 러시아

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 『죽음의 집의 기록』,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등 그의 작품 세계의 핵심을 이루는 대표 작품들을 분석하며 그의 심오한 문학 세계를 조명한다.

저자는 특히 〈종교〉와 〈과학〉이라는 코드를 중심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파고든다. 도스토옙스키는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앙인이었고, 시베리아 유형 시절 뿌리내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의 중심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 만큼 그의 소설에는 예외 없이 신과 인간의 문제가 깊이 새겨져 있다.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의 작품을 논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도스토옙스키는 과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생물학, 기하학, 물리학, 의학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생애 후반까지도 늘 러시아와 유럽에서 발간되는 최신 자연 과학 서적을 탐독했다. 누구보다 〈예언적〉인 작가로 불리는 도스토옙스키는 정치, 경제, 사상, 윤리, 종교 등 여러 영역의 문제들을 한 세기 앞서 심오한 통찰력으로 예고했는데, 놀라운 것은 과학 분야에서도 그의 혜안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심장이었던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고 그의 시대에 가장 강렬한 변화의 화두였던 과학의 문제. 상반되면서도 교차하며 깊은 논쟁과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테마는,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핵심 코드이다.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테마는 특히 도스토옙스키 소설들의 중심 주제를 관통하는 것으로서, 저자는 그리스도교 신학과 성서로부터 끌어온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 그의 작품들을 탐구한다. 가령 〈글로 쓰인 이콘〉이라 할 수 있는 소설 『백치』를 그리스도의 〈강생(말씀의 육화)〉을 구현한 소설로서 분석하기도 하고, 〈부활〉의 관념을 소설화한 『죄와 벌』을 라스콜니코프의 사상을 지배했던 〈신문〉의 언어와 그의 변화를 이끈 〈성서〉의 언어를 대조하며 분석하기도 한다. 또 교부 철학에서 7가지 대죄 중 하나인 〈어시디아〉의 개념을 끌어와 『악령』을 파헤치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나타나는 성서 읽기를 중세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독서 방식인 〈렉시오 디비나〉의 관념으로 살펴보기도 한다.

과학 분야에서는 저자는 특히 신경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계

하여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을 탐구한다. 가령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지하 생활자와 당대 합리주의 결정론자들의 자유의지 논쟁은 오늘날 뇌 결정론을 주장하는 현대 신경 과학자와의 논쟁으로도 읽힐 수 있다. 또 『백치』에 등장하는 여러 회화 작품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시각의 메커니즘을 시각 신경 과학 및 신경 미학 연구와 접목시켜 살펴보기도 하고, 신경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도스토옙스키의 문학과 전기를 정리해 보고, 역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시각에서 흥미롭게 예고된 신경 신학을 살펴보기도 한다. 또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분석과 함께 추적해 보기도 한다. 이처럼 문학과 신학, 문학과 과학 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저자의 연구는 다학제적 연구의 지평을 풍성하게 확장하며 도스토옙스키 문학 세계의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 준다.

#### 4. 『도스토옙스키의 명장면 200』 (석영중 지음, 열린책들, 2021년 10월 30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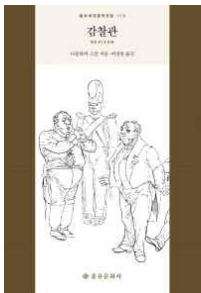
문학자 석영중 교수의 저서 『도스토옙스키의 명장면 200』이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주요 걸작들에서 200개의 장면들을 추려내어 각 장면마다 저자의 짤막한 해설을 덧붙인 책이다.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서 오랜 세월 학생들에

게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을 가르쳐 온 저자는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등 4대 장편을 비롯하여 『가난한 사람들』, 『죽음의 집의 기록』, 『분신』, 『노름꾼』, 『미성년』 등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의 핵심을 이루는 대표 작품들을 망라하여 총 200개의 명장면과 명대사들을 엄선하여 추려냈다. 각 장면들은 〈불안, 고립, 권태, 권력, 고통, 모순, 읽고 쓰기, 아름다움, 삶, 사랑, 용서, 기쁨〉 등 삶의 근본 문제들을 다루는 총 12개의 키워드로 나누어 분류했다.

석영중 교수의 안내와 함께 200개의 불멸의 장면들을 따라가

다 보면, 우리는 도스토옙스키가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자세, 삶을 응시하는 그의 깊은 시선과 통찰을 만나게 된다. 도스토옙스키의 문장들은 손쉬운 위로나 위안의 말을 건네지 않는다. <고통>이나 <불안> 등 삶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털어내 버리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열어 주는 심연을 응시하게 하며,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광막한 대지로 나아가게 한다. 그곳에 인간의 영혼이 이를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함이 있다. 가령 <용서>에 대해 언급할 때는, 용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적인 행위>임을 보여 주면서도, 용서 행위 자체보다 용서할 수 없는 죄악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 <당신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나>고 독자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인다. 때문에 저자는 도스토옙스키에 관해 예리한 글, 심오한 글, 웃기는 글, 심지어 무서운 글은 쓸 수 있을지언정 따뜻한 글은 쓰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그의 치열함을 따뜻함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돌이켜 보면 나는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 그의 소설에서, 그 치열함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 치열함 맨 밑바닥에 있는 삶에 대한 사랑에서 힘을 얻곤 했다>고 전한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삶의 모든 문제에 치열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 치열하게 살아갈 힘이 생긴다. 저자는 도스토옙스키로부터 받은 이 <힘>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 5. 『감찰관』 (니콜라이 고골 지음, 이경완 옮김, 을유문화사, 2021년 10월 30일 출간)



체호프, 푸시킨과 더불어 러시아 대문호로 일컬어지는  
고골의 대표 희곡 걸작선

러시아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인 고골의 대표 희곡 작품들만 엄선한 선집 『감찰관』이 을유세계문학전집 115번째

작품으로 출간되었다. 본 도서에는 고골의 희곡 중 가장 유명하고 작품성이 뛰어난 「감찰관」을 비롯해 「결혼」, 「도박꾼」이 실려 있다. 세 작품 모두 사회풍자적이면서 부조리

하고 종말론적이며 아이로니컬하면서 그로테스크하고 희비극적인 요소가 강한 점에서 고골의 작품세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6. 『도스토옙스키의 명장면 200』 (석영중 지음, 열린책들, 2021년 10월 30일 출간)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대문호인 고골의 첫 문집인 『디칸카 근교 마을의 야회』가 을유세계문학전집 116번째 작품으로 출간되었다. 본 선집에는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창작설화집인 『디칸카 근교 마을의 야회』 이외에 『미르고로드』의 <이반 이바노비치와 이반 니키포

로비치가 싸운 이야기>, 고골이 "페테르부르크 이야기"에 포함시킨 바 있는 <마차>와 <로마>도 수록되어 있다.



## 공지사항

###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6집, 제77집 투고 안내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6집은 2021년 2월 25일 발간 예정입니다. 제77집은 4월 15일에 투고가 마감되어 5월 25일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 ▶ 논문 투고규정

가.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온라인 사이트 잼스(<https://russian.jams.or.kr>)를 통해 논문을 제출한다.

나. 투고 논문은 한국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다. 모든 논문은 ‘아래아한글 2004’ 이상으로 작성하되, 지정된 편집용지 기준 20장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원고에는 편집용지 기준 1장 내외의 외국어(본문과 다른 언어) 초록과 8개 단어 내외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마. 원고 작성의 세부사항은 ‘논문작성 요령’을 따른다.

바.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결 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아. 특별 청탁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의 필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는 논문 투

고 시 심사료(6만원)를 지불하며, 논문이 채택된 경우는 게재료를 납부한다(전임: 20만원, 전임 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 비전임 게재료 없음, 비전임 연구비수혜논문: 20만원). 심사료 및 게재료는 차후 조정될 수 있다.

자.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차. 본인 및 타인의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카.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해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

\*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14-4155946, 예금주: 이선영

### ▶ <평생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학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비납부 현황을 참조해주시십시오.

## 회비납부

### ▶ 회비 납부 현황

2021년 12월 23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

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mailto: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2009~2021년 특별회비를 출연해 주신 회원님

박재만 회원	500,000원 (2021)
최 선 전 회장	1,000,000원 (2021)
서상범 전 회장	1,000,000원 (2020)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2019)
김규중 회원	2,000,000원 (2019)
변현태 전 부회장	1,000,000원 (2019)
최 선 전 회장	1,000,000원 (2019)
문석우 전 회장	1,000,000원 (2019)
이대우 전 회장	1,000,000원 (2019)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9)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8)
이규환 전 회장	2,000,000원 (2017)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7)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2017)
문석우 전 회장	1,000,000원 (2017)
최 선 전 회장	3,000,000원 (2016)
이강은 전 회장	2,000,000원 (2015)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5)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500,000원 (2015)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2014)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4)
변현태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김정일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1)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2017~2021년 평생회비를 한 번 더 내주신 회원님

문석우(50만 원), 백용식(50만 원), 정경택(50만 원), 심성보(50만 원), 윤영순(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항재(50만 원), 서상범(50만 원), 최진희(30만 원) 김진규(50만 원) (이상 10인)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21년 12월 23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민아,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홍중,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광진,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윤영순,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문영,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욱,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정영주, 조규연,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한지형,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9인)

▲ 평생회비 부분납(2021년 12월 23일 현재)

강수경, 길윤미,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태욱, 홍택규(이상 15만 원), 안지영(20만 원), 김상현(25만 원) (이상 10인)

▲ 연회비 납부(2021년 12월 23일 현재)

임혜영, 김현정, 류순옥, 이희원, 김나영, 전병국, 이경완, 정지윤, 김주연, 김연경, 이주홍, 홍택규, 전미라

▲ 기관회원 연회비 납부(2021년 12월 23일 현재)

경북대도서관

▶ 2021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21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과 수료생의 경우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학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박사 학위 취득 시까지 연회비 면제).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함과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 계좌번호: 하나은행 864-910211-28107, 예금주: 서광진

##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311호  
TEL: 053) 950-7160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http://www.russian.or.kr)